

더오르노 STARTUP 즐거운 상상

시로 감정 교류...모두가 행복한 세상 꿈꾸다

원예에 인공지능 기술 접목...정서 케어 시스템 구축 24시간 접근 가능...정신건강 서비스 공백 보완 등도

생성형 AI가 일상 깊숙이 들어오면서 AI와 감정을 교류하는 이용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특히 감정 교류 AI가 의료용을 달래주는 진구에서 전문적인 심리 상담의 영역까지 보폭을 넓히고 있다.

실제 글로벌 시장 조사에 따르면 감정 교류 AI 시장은 연평균 27.1%씩 성장해 2034년에는 555억달러(한화 약 74조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감정교류 AI는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고 반응하는 기술로, 마케팅·고객 서비스·교육 등 다양한 산업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잠재력을 지녔다.

이는 의료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24시간 접근 가능한 심리적 보조 도구로 정신건강 서비스의 공백을 보완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같은 상황 속 AI 기술을 통해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포부로 업계에 뛰어들어 스타트업이 있다.

전남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입주 스타트업인 '즐거운 상상' (대표 김태식)이다.

즐거운 상상은 지난 2022년 설립된 AI 감정 인식 전문 기업이다.

업체는 최첨단 딥러닝(Deep learning, 외부 데이터를 조합, 분석해 학습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사람의 표정과 감정을 정확히 분석해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확장될 수 있는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



김태식 대표

하고 있다.

김 대표는 원예치료사인지 인과의 대화 후 '원예치료를 AI와 접목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업계에 첫 발을 내딛게 됐다.

원예치료란 식물, 정원 가꾸기, 가드닝 등 식물을 활용한 여러 활동을 통해 신체, 정신적 회복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치료 과정으로 인지, 정서, 사회, 신

체적 기능 회복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여기에 김 대표의 'AI 기술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해를 돕고 더 따뜻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의지가 더해지면서 '아무무' (Amuu-muu)가 탄생했다.

'아무무'는 카메라 모듈을 통해 사용자의 표정 등을 분석해 사용자의 현재 감정



즐거운 상상의 대표 제품인 '아무무'는 카메라 모듈을 통해 사용자의 표정 등을 분석해 사용자의 현재 감정을 전달하는 인공지능 감정 스마트 소형기이다.

을 전달하는 인공지능 감정 스마트 소형기이다.

불안, 우울 등 부정적인 감정을 먼저 알아채 제품에 내장된 식물을 이용한 케어까지 제공한다.

여기에 매일 사용자의 감정을 자동으로 기록, 사용자 스스로 감정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고 감정을 회복시키는 자연치유의 과정을 인공지능에 도입해 사용자 감정 및 식물 상태 분석 기반 식물 활용 정서 케어 시스템을 구축

한 것이다.

특히 일상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싶은 직장인, 정서적 안정이 필요한 아동·청소년, 인지 활동과 소근육 자극이 중요한 어르신, 그리고 돌봄으로 지친 가족 구성원까지 모든 세대가 이를 이용할 수 있다.

'즐거운 상상'의 기술은 지난해 전남대와 기술공동개발 업무협약을 통해 날개를 달았고, 기업을 비롯해 병원 등에서 관련 제품 구매 의향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또 미국, 뉴질랜드 등과 기술 협약을 체결했으며 그 외 타국에서도 협약 체결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김태식 즐거운 상상 대표는 기술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AI 감정인식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를 꿈꾸고 있다.

김 대표는 "회사명부터 제품명까지 모든 사람이 기술을 통해 행복해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며 "우리의 기술은 사람 중심의 따뜻한 기술을 구현해 감정 회복, 삶의 질 향상, 사회적 공감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용성 기자 yj104@gwangnam.co.kr



'아무무'

'AI로 전력 절감'...삼성전자, 인버터 제습기 출시

고효율·대용량 제습 성능...연속 배수 등 신규 기능 탑재 전 모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지원...최대 30% 더 절약

삼성전자가 에너지 효율과 대용량 제습 성능을 강화한 2026년형 인버터 제습기를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올해 출시되는 전 모델은 제습 효율을 높이는 '디지털 인버터 컴프레서'가 탑재돼 전 모델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을 지원한다.

여기에 스마트싱스 기반의 'AI 절약모드'를 활용하면 전력 사용량을 최대 30% 줄일 수 있다. 이번 신제품은 도서관 수준(50dB)보다 낮은 32dB 이하로 작동하는 '저소음 모드'를 지원해 수면 중에도 소음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또 삼성전자는 기존 제습 용량 18ℓ 모델에 21ℓ, 23ℓ의 대용량 모델을 새롭게 추가해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혔다.

사용자는 세탁실이나 드레스룸 등 빠르고 강력한 제습이 필요한 공간부터 넓은 거실까지 사용 환경에 맞춰 제습 용량을 선택할 수 있다.

아울러 장마철이나 습도가 높은 환경에서 연속적으로 제습할 수 있도록 '연속 배수' 기능도 새롭게 적용했다.

제품 후면의 배수 캡에 연속 배수 호스를 연결해 두면 물통을 매번 비우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 신제품에 '물통 라이팅' 기능을 새롭게 적용했다. 만수 시 불빛이 깜빡이며 알람을 주어 상태를 즉시 확인할 수 있고, 8가지 색상의 빛을 내는 '무드 라이팅' 기능도 갖춰 감각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또 스마트싱스를 통해 스마트폰으로 제습을 원격 제어할 수 있는 '퀵 리모트' 기능도 지원해 희망 습도나 작동 시간 예약 설정을 간편하게 할 수 있다.

2026년형 인버터 제습기 신제품은 공간에 녹아드는 '빅토리 그레이'와 '어스 브라운'의 2가지 색상으로 제공되며, 삼성전자의 '블루스카이' 공기청정기 라인업과 패밀리룩처럼 조화롭게 어울린다.

출고가는 제습 용량에 따라 67만9000~81만9000원이다.

삼성전자 DA사업부 임성택 부사장은 "이번 신제품은 높은 에너지 효율로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고 대용량 제습·연속 배수 기능으로 사용 편의성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라며 "혁신적인 기술로 세계질내내 쾌적하고 건강한 실내 환경을 제공해 소비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제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삼성전자가 뛰어난 에너지소비효율과 사용 편의성을 두루 갖춘 2026년형 고효율 인버터 제습기를 출시했다.

갤럭시 S26 울트라, MWC 26서 '최고 전시 제품상'

스페인서 세계 최대 규모 이동통신 산업박람회 진행

삼성전자의 '갤럭시 S26 울트라'가 4일(현지시간)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2026(MWC26)에서 '최고 전시 제품상'을 수상했다.

MWC는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가 주관하며 매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이동통신 산업 박람회다.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는 매년 MWC 기간에 글로벌 모바일 어워드를 열어 모바일 업계에 탁월한 혁신을 이뤄낸 제품들을 시상한다.

특히 '최고 전시 제품상'은 전 세계의 애플리스트, 기자, 인플루언서로 구성된 전문 심사위원단이 업계를 선도하는 가장 혁신적인 제품을 선정해 수여한다. '갤럭시 S26 울트라'는 첨단 하드웨어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 CEO 존 호프만(왼쪽)과 삼성전자 MX사업부 모바일마케팅센터장 최승은 부사장(오른쪽)의 시상 장면.

와 One UI 8.5 기반 소프트웨어가 유기적으로 결합돼 작동하며, 한층 강화된 갤럭시 AI와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사용자

의 필요를 예측해 도움을 주는 직관적인 모바일 AI 경험을 구현했다.

또 세계 최초로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를 탑재해 선명한 화질을 유지하면서도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첨단 디스플레이 엔지니어링 기술을 선보였다.

아울러 더욱 빠른 갤럭시 AI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갤럭시 전용 칩셋을 탑재했으며, 누구나 손쉽게 AI를 활용할 수 있는 모바일 경험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삼성전자 MX사업부 마케팅센터장 최승은 부사장은 "갤럭시 S26 울트라가 올해 글로벌 모바일 어워드에서 최고 전시 제품상인 'Best in Show'를 수상해 영광"이라며 "갤럭시 S26 울트라는 삼성전자의 역량이 집약된 에이전티브 AI폰으로, 삼성전자는 앞으로도 기술 한계를 뛰어넘는 모바일 혁신을 이루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한전 ESG 경영 우수성, 세계에서 인정받아

S&P 글로벌 지속가능성 평가 'Yearbook Member' 선정

한국전력공사가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평가에서 우수 기업으로 선정되며 ESG 경영 성과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한국전력은 S&P 글로벌이 주관하는 '기업 지속가능성 평가(Corporate Sustainability Assessment·CSA)'에서 전력 유틸리티 분야 'Sustainability Yearbook Member(지속가능성 연감)'에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CSA는 세계 3대 신용평가사 가운데 하나인 S&P 글로벌이 매년 전 세계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 전

반을 종합 평가하는 지속가능경영 지표다. 올해는 59개 산업군에서 약 9200개 기업이 평가 대상에 올랐으며 이 가운데 848개 기업만이 '지속가능성 연감'에 이름을 올렸다.

전력 유틸리티 분야에서는 이탈리아 에넬(Enel), 스페인 이베르드롤라(Iberdrola), 스페인 악시오나(Acciona) 등 글로벌 주요 전력기업을 포함해 총 26개 기업이 선정됐다.

한전은 이번 평가에서 76점을 기록해 전년보다 10점 상승했다. ESG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온 노력과 성과가

반영된 결과라는 평가다.

한전은 지난 2020년 공기업 최초로 이사회 산하 ESG위원회를 신설하고 ESG 관련 주요 경영 현안과 전략을 심의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ESG 성과와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며 지속가능경영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에너지 전환 노력도 이어가고 있다. 한전은 선제적 송·배전망 구축과 전력망 안정성 강화, 에너지 효율 향상 추진, 전력 생산·수요 분산화 등을 통해 탈탄소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안전과 사회적 책임 분야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다. 한전은 안전경영 기조 아래 지난해 '중대재해 ZERO'를 기록했으며 공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3년 연속 정부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인정기관에 선정됐다.

송대용 기자 sdw0918@